7 미국 NIH, 연구 제안서 평가 방식 개편안 제시

미국 국립보건원(NIH)은 연구 보조금 지원 심사 시 구체적인 평가 점수 대신 3단계 범주(등급)를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평가 방식을 제안*('26.8)

* Request for Information (RFI) on Proposed Changes to Reporting Outcomes from NIH Peer Review

※ NIH는 전 세계 생의학·행동연구 분야에서 가장 큰 연구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, 미국에서 국립과학재단(NSF)과 더불어 민간·대학 연구자에 대한 기초·응용 연구 보조금을 가장 많이 운용하는 지원 기관

○ **(평가 방식 개편안)** NIH는 연구비 지원 신청서에 대한 동료 평가 결과를 점수가 아닌 범주(3등급)로만 공개하는 개편안을 제안하고, 공개 의견수렴*을 시작

* 의견수렴은 '26년 8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진행

- **(절차 개요)** NIH의 연구비 지원 결정 과정은 대략 ①신청서 제출 → ②1차 평가(동료 평가) → ③2차 평가(자문위원회 평가) → ④최종 결정 대기 → ⑤지원금 지급의 순서로 진행
- **(범주 구분)** 개편안에 따르면 NIH는 신청서에 대한 1차 동료 평가 결과를 ▲"가장 경쟁력 있는" 신청서 ▲"경쟁력 있는" 신청서 ▲"논의 제외" 신청서의 3가지 범주로 나눠 공개할 방침

〈 동료 평가 결과 구분 방식(개편안) 〉

구분	내용
가장 경쟁력 있는 (most competitive) 신청서	• 연구 제안서에 대한 종합 영향력 평가 점수가 상위 25% 이내인 경우
경쟁력 있는 (competitive) 신청서	• 종합 영향력 평가 점수가 상위 26~50% 이내인 경우
논의 제외 (not discussed) 신청서	• 종합 영향력 평가 점수가 50% 미만이거나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

- **(기존 방식)** 기존에는 동료 평가 결과를 종합 영향력 점수로 산출한 후, 평가 결과 요약서에 해당 점수와 해당 연구 제안서의 상대적 순위(백분위수*)를 구체적인 수치로 기록

* 동료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그룹이 최근 3회의 심사 라운드에 걸쳐 검토한 신청서 대비 해당 신청서 평가 결과의 상대적 순위(상위 %)를 보여주는 지표

- **(결과 활용)** 신청서에 대한 평가 점수는 2차 심사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고, 연구자들도 이를 활용해 자신이 제출한 신청서가 다른 신청 사례들과 비교해 어느 수준인지,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를 파악

〈 NIH의 지원서 평가 프로세스(현행) 〉

구분	주요 내용
1차 평가 - 동료 평가	• **(개요)** 해당 분야 과학 전문가(동료 심사자)들이 연구비 지원 신청서의 과학적·기술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단계 • **(예비 평가)** 동료 평가 그룹은 배정된 각 신청서를 검토하고, 해당 그룹 내 최소 3인의 예비 평가 심사자가 서면 평가서를 작성 - 심사자들은 해당 신청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연구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개별 심사 기준들에 따른 강점과 약점을 평가해 각각에 대해 1~9점(1점 탁월, 9점 미흡)까지 점수를 부여 - 이후 점수를 통합해 종합 영향력 점수(평균값에 10을 곱하여 산출)를 10점(높은 영향력)부터 90점(낮은 영향력)까지 분류 • **(논의 진행)** 일반적으로 종합 영향력 점수에서 상위 50% 이상에 해당하는 신청서에 대해 연구비 지원을 위한 논의(토론)를 진행 - 상위 50%에 들지 못한 연구 제안서는 추가 논의 대상에서 제외('not discussed'로 분류) • **(최종 점수 산출)** 논의 과정을 거친 후, 그룹 내 모든 심사위원이 영향력 점수를 부여하면, 이러한 점수를 통합해 최종 종합 영향력 점수를 산출
공개 대상	• 신청서 심사 결과는 평가 결과 요약서(summary statement)로 정리돼 신청자 및 신청기관, NIH 프로그램 담당자, 연구소·센터·사무국(ICO*) 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 * NIH Institutes, Centers, and Offices: NIH는 단일 기관이 아니라 여러 하부 조직으로 구성된 연방 기관으로, 총 27개의 연구소 및 센터(ICs)와 원장실(OD) 산하의 다양한 사무실(Office)을 묶어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 - 요약 보고서의 내용은 평가 그룹 내 모든 전문가들이 각각 밝힌 비평, 심사기준별 점수, 토론 내용, 최종 종합 영향력 점수 등으로 구성
2차 평가 - 자문위원회 검토	• **(개요)**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인 연구소·센터의 자문위원회가 2차 평가를 실시하는 단계 • **(추천 절차)** NIH 프로그램 담당자가 1단계 결과를 연구소·센터의 우선순위, 정책 목표, 예산 상황 등과 대조해 검토한 후 제안서에 대한 자금 지원 권고안(펀딩 플랜)을 마련해 제시 • **(협의)** 자문위원회는 평가 결과 요약서 등을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한 후 자금 지원 결정과 관련한 의견(조언)을 연구소·센터 장에게 제시

- **(차이점)** 개편안은 동료 평가 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, 범주 구분에 사용된 구체적인 점수와 백분위수를 보조금을 신청한 연구자·기관은 물론 NIH 프로그램 담당자 및 자문위원회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골자
- **(영향)** 이러한 변경은 결과적으로 연구 보조금 '지원 대상 선정 방식'은 물론, 연구자 피드백 및 투명성 등 '결과 보고 구조'에도 변화를 초래

○ **(논란)** 개편안이 공개되자 언론 매체와 학계는 NIH의 연구비 지원 심사 과정이 불투명해지고 정치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

- 연구비 신청자들이 최종 점수나 백분위수, ICO의 지원금 기준선(pay line) 같은 중요한 피드백을 확인할 수 없게 되면 자신이 제출한 신청서의 경쟁력을 평가하거나 수정 방향을 결정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

- 또한 NIH의 연구비 지원이 과학적 타당성보다 미국 대통령 또는 특정 임명직 인사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비판론이 대두
-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연구비 지원 과정에서 동료 평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정부 기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,* 이러한 행보는 연구비 지원 결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더욱 자극

* 트럼프 대통령은 고위 임명직 공무원들이 연방 보조금에 대한 지급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행정명령(EO 14332, '25.8.7.)을 발표했고, 백악관 예산관리국(OMB)도 관련 규칙 초안을 발표('26.5.29.)

○ **(옹호론)** 반면, NIH는 새로운 평가 방식으로 종합 영향력 점수에 과도한 비중을 두지 않으면서도 과학적 우수성에 대해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

- 영향력 점수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NIH의 프로그램 담당자가 자금 지원 권고안을 작성할 때 동료 평가 결과는 물론 과학적 기회, 예산 가용성, 연구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
-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NIH와 ICO의 우선순위에 더욱 부합하는 자금 지원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

출처 : 미국 국립보건원(NIH) (2026.8.14.)
https://grants.nih.gov/grants/guide/notice-files/NOT-OD-26-088.html
https://www.insidehighered.com/news/quick-takes/2026/08/17/nih-wants-remove-peer-review-scores-grant-applications
https://www.forbes.com/sites/brucelee/2026/08/15/nih-proposes-big-change-in-how-grants-applications-evaluated/